

함께센터: 소규모 사업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1:1 또는 그룹 코칭을 통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세금 신고, 정부 규정들, 사업 홍보 등 창업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안내;
- 귀하의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확장과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방안들을 모색합니다.
- 지원금과 대출 등을 통해 자금(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렌트, 모기지, 병원비 그리고 음식(SNAP) 등의 재정 지원을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언어 : 한국어, 영어

예약을 원하시면, 재정 서비스 코디네이터
(syoon@hamkaecenter.org/571-325-9336 TTY 711/카카오톡:

Smallbiz-Hamkae) 또는 신청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1. 면허 및 허가 신청. 필요한 면허, 허가 그리고 관련 수수료는 업종, 주(state), 지역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의 다양한 면허와 허가가 혼합되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족해야 할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2.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노동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체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와 연방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업보험세, 신규 직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이민법, 보건 및 안전, 종업원 산재보험, 최저 임금

주 노동법, 인력 수급, 통상 임금, 실업보험, 노조 결성, 복리후생 제도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해당 주 정부에 문의해 주세요.

유용한 링크와 자원 섹션은 이러한 법률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센터: 소규모 사업 상담 자원 리스트

버지니아주 내 기존 및 예비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용자 및 행사 자원 자세한 사항은 재정 서비스 코디네이터 (syoon@hamkaecenter.org) 에게 문의해 주세요.



미국 상공회의소(USChamber.com)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에 도움이 되는 100여개 이상의 지원금, 대출 및 프로그램들

필요도 조사:
(영어와 한국어 제공)



신규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상담 자원 가이드

면책 고지: 본 자원 목록은 함께센터 소규모 사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지역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 자원 및 링크는 오직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리스트에 포함된 제3자 서비스, 기관 또는 참여 기획의 완전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것이 함께센터의 공식적인 지지나 추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비즈니스, 재무 또는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모든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함께센터 소규모 사업자 상담 프로그램과 그 직원은 본 자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 기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계(AAPI) 직장 문화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직장에서 암묵적인 문화적 예절과 관행에 대해 유의하세요.

"관계 우선" 접근법

-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계(AAPI) 문화권에서는 회의 시작 시 가벼운 대화 대신 가족, 지역 사회, 문화적 전통에 대해 '서로를 알아가는' 또는 '근황을 묻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표면적인 관계나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들은 신뢰를 쌓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사업 환경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차 또는 차이(Chai)를 대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존중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기업 윤리와 지역사회 신뢰

- 남아시아 무슬림의 경우, 비즈니스 관행은 할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들의 성공은 '바라카(Barakah)'로 정의됩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비롯되는 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업 관행을 할랄(Halal)로 유지하기 위해 종종 할랄 은행을 이용(예를 들어 무이자 대출을 이용하는 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차와 직함에 대한 존중

- 미국의 직장 문화가 점점 더 캐주얼해지는 반면, 많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문화권은 여전히 직장 내에서 명확한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계(AAPI) 문화권에서는 직함 + 성으로 상대방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박사님, 대사님, 이사님, Mr./Ms. + 성 등으로 부릅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는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더라도 삼촌/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 요령

- 미국의 주류 문화에서는 예의를 갖춘 전문적인 직설법을 중시하지만, 많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문화권에서는 문맥 속에 담긴 의사소통의 기술을 중요시 합니다.
- 고맥락 의사소통: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상사나 동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정중한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인샬라(Insha'Allah)"의 의미: 남아시아의 많은 무슬림 사회와 아랍 문화권에서 "인샬라"라는 표현은 "신의 뜻대로"라는 뜻으로, 정중하고 솔직한 답변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회의에서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사람이 아닌 신에게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양측이 각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연성과 이해를 유지하겠다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협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입니다

- 미국에서는 '흥정' 또는 '협상'이 대립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시아·태평양계(AAPI) 문화권에서는 이를 사교적 교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며, 주고받는 대화는 양측 모두가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 아시아·태평양계 (AAPI) 문화에서는 많은 비즈니스 협상이 음식과 음료(일부 문화에서는 차나 술)와 함께 이루어지며, 음식은 선의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언어로 여겨집니다.

현대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술을 잘 마시는 능력이 거래 성사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